

## 목장교재 목자 지침서 <평범에서 비범으로>

3/31(주일) 설교 내용

고린도전서 1:26-31

1. 만약 나에게 새로운 이름이 생긴다면, 어떤 이름을 갖고 싶은가요?  
그 이름을 갖고 싶은 이유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. 성경의 이름도 좋고, 일반적인 이름도 좋습니다.

1번 질문은,  
모든 사람들이 한번씩 대답해 볼 수 있는 '마음을 여는 질문' 입니다.

만약 이름을 새로 갖게 된다면,  
어떤 이름을 갖고 싶은지..  
반드시 성경의 이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.  
편하게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.

평소에 나눔을 어색해 하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게  
하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.

2. 오늘 설교에서는, '소명'(Calling)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. 인생을 살면서, '아,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불러 주시고 살게 하셨구나'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.

이 질문은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.  
하지만, 한번쯤은 해보았음직한 주제이기도 합니다.

'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?'  
조금 더 구체화 시킨다면,  
'나를 왜 미국에 보내셨을까?'  
'성광교회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을까?'  
'많은 목장들 중에 지금 이 목장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텐데..' 라는 관점으로 좁혀 간다면 어떨까 싶습니다.

나눔의 방향만 잘 잡힌다면,  
은혜로운 나눔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

3. 오늘 설교에서는, 성령 충만했던 몇몇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. (베드로와 요한, 스테반)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적이 있다면, 그 때의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. (성령충만할 때의 기분이나 감정은 어떠한지, 어떻게 성령충만을 경험할 수 있었는지 등)

'성령충만' 은, 우리가 자주 다루는 주제이지만,  
그만큼 나누기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합니다.

'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' 과 '성령 충만'은 별개의 문제입니다.  
목원들 가운데 '성령 충만'을 경험한 분이 있다면,  
겸손히 그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십시오.

그런 경험이 없는 분과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,  
자연스럽게 나눔을 유도해 주시고,  
마지막은 '아직 성령충만을 경험하지 못했거나, 또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내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갑시다' 라며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